

시민과 함께 걷어가는 인천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이 미디어다

소통과 공감으로 실현되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COVER STORY
광고 전문, 비워이 Bewhy
표지 사진: 류창현





육지가 '아직' 바다라면

동막마을, 척전마을, 시듬물, 신촌, 박젓뿌리...
송도 갯벌에 기대어 먹고 살던 마을들이다.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그 옛날 어머니들이 펄에 뒤엉켜 갯것을 이고 오가던 길엔
오늘, 거대한 도시가 들어섰다.

‘바다가 육지라면...’ 1994년부터 바다를 막고 갯벌을 메우기 시작했다.
바다를 내어주는 대신,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도시가 됐다.

갯벌과 땅, 그 가치의 무게는 어디로 기우는 것일까.
내일에서야,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손에 든 옛 사진은 고 김명철(1918~1978) 선생의 작품 '송도 갯벌'이다.
고 김명철 선생은 우리의 근대 풍경과 삶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인천의 사진작가다.

CONTENTS



04 인천 미소 온라인 시민 청원 외	24 살고 싶은 도시 ① 오스트리아 빈	44 이미지 뉴스 시민안전보험
06 신년 인사 시장 메시지 / 의장 메시지	28 시민 시장 민선 7기 시장 슬로건 창안자 김소영	46 시정 뉴스 2019년 국비 첫 '3조' 돌파 외
08 새해 소망 황금돼지해 시민 메시지	30 모바일 소통 인천시 애플리케이션	50 의정 뉴스 제8대 인천시의회, 열린 행정사무감사 외
10 커버스토리 - 사람과 공간 ① 래퍼 '비와이'의 작업실	32 평화, 새로운 미래 서해평화 사진전	52 드로잉 인천 신포국제시장 청년물 눈꽃마을
14 키워드 새해, 달라지는 것들	36 내가 사랑하는 인천 사진가 최병관	54 인포 박스 우리 동네 건축 자산 추천하기 외
18 정책 INFO 2019년 인천 예산	38 문화 캘린더 뮤지컬 '신데렐라'외	58 인천의 아침 새해, '남북평화의 파시'를 기다리며
20 사일로 기네스북 등재 세계 기록을 만든 사람들	42 문화 포커스 인천예술정거장 프로젝트	59 인천사진관



인천미소

인천과 시민을 잇는 '미'디어
시민의 청원에 답하는 '소'통e가득
'인천 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항상 미소 짓습니다.

인천시 종합 매거진
<굿모닝인천>이 모바일에 쏙!

인터넷 주소창에
www.mgoodmorningincheon.co.kr
검색창에는 <굿모닝인천 모바일>을 입력하세요.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incheon.gov
블로그 blog.incheon.kr
유튜브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 twitter.com/incheon_gov
카카오톡 story.kakao.com/ch/incheoncity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천시 미디어'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ncheon_gov
웨이보 www.weibo.com/incheon

청원하고 공감하면, 인천이 바뀝니다!

인천은 소통e가득

0.1%의 공감,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으로

'온라인 시민 청원'은 인천시 주요 정책이나 지역 현안, 개선해야 할 제도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시민들이 인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채널입니다. 30일 동안, 300만 인천 시민의 0.1%에 해당되는 3,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공감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1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300만 인천 시민의 더 행복한 삶, '온라인 시민 청원'으로 실현됩니다.

■ 인천시 홈페이지 내 '인천은 소통e가득' 사이트에서 참여하세요

- 인천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시정부 주요 정책,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 자유롭게 표명

시민 청원 홈페이지 인천은 소통e가득 cool.incheon.go.kr

■ 시민 3,000명 이상 공감하면, 시장이 직접 응답합니다!



착한 소통을 위한 약속!

욕설과 비속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동일 이용자에 의한 중복 청원 등은 삭제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시민 미디어 시대'와 2019년

글 장훈 시 미디어담당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황금돼지해, 풍요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신년 초가 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한 해를 계획하는 일로 분주하다. 인천시도 업무 보고 준비로 한창 바쁘다. 한 해의 기초를 정하고, 업무 방향과 실천 계획을 시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6개월 전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시정 슬로건을 어떻게 정할까 하는 논의가 있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새로 당선된 단체장이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시는 온전히 시민들의 뜻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민선 7기 기초와도 맥을 같이 한다. 시민 공모 절차를 미디어담당관실이 주무가 되어 진행했다. 많은 시민들이 응모해주셨고, 심사해주셨고, 결정해주셨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은 그렇게 만들어진 시민 슬로건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곱씹어지고, 울림이 크게 다가온다.

올해에도 인천시의 시민 중심 기초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담당관실의 업무 추진 기초 역시 '시민이 미디어다'로 정했다. 바야흐로 '시민 미디어 시대'다. 매스 미디어 시대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시민 미디어 시대'는 대안을 넘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 기관의 보고서는 올해 대한민국 트렌드를 '1인 체제'라고 전망했다. 유튜브몰락이 더욱 확산되고, 인간관계가 리셋되고, 끈대 등 권위주의 거부 현상이 커지며, 모든 이슈를 '나'의 시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개인 곧 시민이 생산자가 되고, 매체가 되고, 또 소비자가 되는 세상이 더 크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 미디어 시대'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공유와 소통'의 시대정신이다. 가장 핵심적인 흐름은 정보의 공유라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이나 4차 산업혁명의 기반도 공유의 가치에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은 새로운 시대에 정부와 공공 분야가 앞장서야 할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인천시가 온라인 소통과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시민 참여와 민관 협치의 제도화를 모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정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 '시민 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 예로 '가짜뉴스'와 같은 부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시민의 역사는 대부분 옳은 방향으로 향했다. 시민 집단 지성의 힘은 이러한 부작용을 정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결국 2019년 인천시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시민'이 될 것이다. 인천광역시 미디어담당관실도 '시민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도 시민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한다.



시장 메시지

시민 행복과 인천 발전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역사적인 2018년을 보내고 새로운 2019년을 맞이했습니다. 인천 시민 모두가 행복은 키우고, 소망은 이루며, 건강은 지키는 2019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에는 많은 경사가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났고 올해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0%이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해 대비 15.2%, 4천61억 원 늘어난 국비를 확보해 인천 예산 10조 원, 국비 3조 원 시대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해경이 부활해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고, OECD세계포럼과 세계한상대회 등 세계적인 국제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했습니다. SK와이번스가 8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궈냈고, 인천유나이티드FC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인천의 이러한 경사들은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낸 오랜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부채 도시라는 오명과 인천에 대한 왜곡된 시선 속에서도 인내와 헌신으로 인천의 희망 빛을 밝혀 주신 300만 시민들 덕분입니다.

지난 6개월간 변화와 혁신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라는 비전도 가슴에 새겼습니다. 2019년에는 낡은 과거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달음에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인천 전 지역을 두루 살피, 원도심과 구도심, 신도시가 골고루 발전하는 인천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평화를 준비하고 선도해 앞으로 평화가 인천 번영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힘나는 민생 경제를 위해 정부와 기업을 찾아다니며 투자 유치에 힘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거나 외면 받지 않는 시민 복지와 안전 제일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시민들이 어깨 펴는 자랑스러운 인천이 되도록 시장부터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인천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인천 시민들이 계시기에,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향한 2019년 인천시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열여가는 소망의 길 위에서, 언제나 시민과 함께 걷는 인천시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새해 아침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의장 메시지

시민의 봉사자로 행동하는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60년 만에 맞이하는 황금돼지의 해에는 여러분 가정마다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인천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과 영종 복합 리조트 조성, 송도컨벤시아 2단계 준공으로 세계 최고의 마이스 인프라를 갖추면서, 사상 처음으로 세계 20위권의 국제회의 개최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7대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제 도시로 올라서게 되었으며, 경제성장률에서도 7대 도시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원한 제8대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제8대 의회는 현장 방문과 현안 사항 토론회를 거쳐 각종 조례안·예산안·동의안·건의안 등 20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시 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행동하는 의정 활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인천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은 300만 인천 시민이 바라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시의회는 시민과 항상 소통하고 일하고 연구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현장 중심의 의회’, ‘협치를 통해 협력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우리 인천이 모든 분야에서 번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새해 아침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번**

황금돼지해, 행복하게 '되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특히,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 예로부터 돼지는 재물 복을 의미해 올해 더욱 풍요로움을 기대하게 만든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돼지띠 시민들의 새해 소망과 계획을 들으며 인천의 내일 지도를 그려보자.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진병관(60) 직장인, 연수구

올해 정년퇴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별 탈 없이 근무 잘한 것에 감사하고 마무리 잘하고 직장 문을 나서게 되길 바랍니다. 막내아들이 지난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는데, 공무원으로서 인천 시민을 위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봉사 행정'에 힘썼으면 합니다. 인천시에서 미세먼지 관련한 효과적인 정책을 많이 수립했으면 합니다. 또 실제적인 원도심 정책이 실행되어 고루 잘 사는 인천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선영(48) 제조업체 대표, 서구

대한민국이 그동안 제조업을 근간으로 살아왔는데, 지난해는 인건비 상승, 원자재비 상승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잘 버틸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외국에는 몇 십 년, 몇 백 년 된 작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단발성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경기가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영미(48) 이제우(12) 돼지띠 모자, 남동구

군대에 있는 큰 아들이 올해 제대하는데, 학교 복학 잘했으면 좋겠어요. 남편 건강검진 결과가 조금 안 좋아 걱정인데,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영미)
올해 인천은봉초등학교 최고 학년인 6학년이 되는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마지막 해니까 친구들과 추억 많이 만들고 즐거운 학교생활 했으면 좋겠어요.(이제우)



이소희(36) 직장인, 남동구

아이가 어려서 여행을 제대로 못 갔는데, 올해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즐겁고 특별한 가족 여행을 가고 싶어요. 지난해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를 보고 드림의 매력에 빠졌는데, 드림도 배우고 싶네요. 두 가지 소원 모두 이뤘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어리고 맞벌이다 보니 아이 키우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육아 관련 지원과 정책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박영근(36) 직장인, 계양구

오는 3월 결혼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가족 모두 화목하고 건강했으면 합니다. 늦게 결혼하는 만큼 가능하면 올해 아이가 생겨서 저와 같은 돼지띠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아이를 낳고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출발, 황금돼지해 파이팅입니다!



이미선(24) 인천대, 서구

올해 졸업하는데,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 취직하는 게 첫 번째 소원이 되어버렸네요. 승무원이 꿈인데,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에도 청년 취업을 도와주는 다양한 지원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돼지띠 친구들아, 우리 모두 사회에서 만나자!



박찬빈(12) 해송초등학교 6학년, 연수구

지난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배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연탄을 배달해드렸던 분들이 2019년에는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 운동장이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친구들과 놀 때 자꾸 신발 안으로 모래가 들어와요. 인조 잔디 깔아주시면 안될까요?



이종만(60) 직장인, 계양구

가족 모두의 건강, 그게 가장 큰 소원이죠. 올해 정년을 맞아 퇴직하게 되는데, 마무리 잘해서 아쉬움이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회생활 가능한 나이인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계획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좀 많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황금돼지해니까 모든 게 풍요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BE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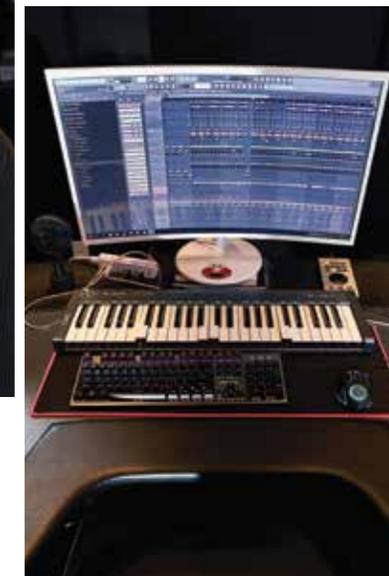
비와이

공간은 곧 사람을 의미한다. 숨 쉬고 머무는 자리마다 살아온 시간과 삶을 대하는 태도, 생각이 스며든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아주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인천을 본다. 그 첫 번째로, 대한민국 힙합(Hiphop) 음악의 중심에 있는 래퍼 비와이(이병윤 | BewhY)의 작업실을 찾았다. 사방이 온통 깊고 검은, 그를 그대로 닮은.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BEWHY



도시의 땅 밑 깊숙이 숨은 작업실은 작지만 큰, 그만의 '우주'다.

깊고 은밀한 공간

검은색은 가장 깊은 색이다. 모든 빛깔을 겹겹이 쌓아야 비로소 드러나는 색. 이 짙고 어두운 색상은 역설적으로 다채로운 색을 발산한다. 도심 한복판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래퍼 비와이(이병윤 | BewhY)의 작업실이 그랬다. 서너 개의 음악 장비만으로도 꽉 차는 30m² 남짓한 밀실. 한 줄기 햇살도 비집을 틈 없는 이 안에, 그는 때로 며칠씩 틀어박혀 오로지 음악을 만드는 데만 집중한다. 비와이의 음악은 흥겹지만 심오하고 강하면서도 유연하다.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음악이, 이 어둡고 짙은 공간에서 여러 빛으로 파생되어 나온다.

비와이는 인천 출신 힙합(Hiphop) 뮤지션이다. 2014년 싱글 앨범 왈츠(Waltz)로 데뷔해, 2년 만에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MAMA) 랩&퍼포먼스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그는 힙합 오디션 TV 프로그램 '쇼미 더 머니(Show Me The Money) 5'의 우승자로, 역대 시즌을 통틀어 세상을 가장 놀라게 한 래퍼로 회자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 순간 꿈에 가까워졌지만, 여기서 안주해도 자만해서도 안 된다. 더 낮은 자세에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을 키우고 있다."며 갑자기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경계한다. 이제 스물여섯, 사고가 나이 이상으로 성숙하다.

“제게 재능이 있다면 단 10%, 나머지는 전부 노력이 차지합니다.” 좁은 밀실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깊고
묵직한,
생각

비와이를 둘러싼 수사 중 하나는 ‘착한 래퍼’다. 많은 힙합 뮤지션이 ‘스웨그(Swag)’로 물질적인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는 자신이 믿는 가치관과 신념을 노래한다. 이는 힙합을 뒷골목 음악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어른들의 마음까지 돌려 놓았다.

단순히 내 바지 주머니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야 / 내 위치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히 /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 영원의 것을 영원히 따라 - ‘포에버(Forever)’ 중에서

그의 음악을 들으면, 만만치 않은 관조로 세상을 바라보는 머릿속이 궁금해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흔히 많이 가진 사람을 멋지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물질을 먼저 두지 않아요. 저의 멋, 가치는 돈이 아닌, 신앙과 음악에 있습니다.”

평범한 청년이 음악으로 갑자기 큰돈을 벌었다. 순간 물질에 현혹되기도 했다. 어린 시절 그는 인천의 한 백화점 명품 매장을 구경하다, 운동화 차림의 자신을 위아래로 훑는 점원의 시선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 ‘성공해서 이 매장을 털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뜻대로 됐다. 하지만 ‘돈과 박수에 취해 명품이나 사 입다니, 겨우 이런 것에 무너지다니...’ 행복하지 않았다. 아주 짧은 동안이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곧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때 낸 음악이 ‘구찌 बैं크 (GUCCI BANK)’, ‘고장 난 네비’다. 대놓고 물질을 이야기하다, 자신을 다잡고 바른 방향을 찾는 내용이다.

작업실 한편에 늘 함께하는 성경. 신앙은 그를 지탱하는 힘이다.



DEJAVU

I am from 인천 / as known as 미추홀 / 이곳에서 전설로 만들어져 가는 나와 내 식구 - 데뷔곡 ‘왈츠’ 중에서

그는 일곱 살 때 인천으로 와 지금 부모님과 함께 동춘동에 살고 있다. 여의치 않던 시절,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기도 했지만 이젠 추억이 됐다. 인천은 오늘의 비와이를 있게 했다. 돈을 벌었다고 세상에 알려졌다고 해서, 떠날 이유는 없다.

“평소 인천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인천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치 있는 도시예요. 그만큼 자랑스럽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인천의 친구들도 이 안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내다보길 바랍니다. 내가 발 딛고 선 내 땅이잖아요.”

그는 올해 청라국제도시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위한 기획사를 차린다. 자신의 꿈이 자란 공간을 모두에게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름은 ‘데자부(Dejavu)’. 어릴 적 꿈이 오늘 현실이 되었듯, 다른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

“성공하면 서울에 가고 조건 좋은 큰 회사에 가고, 그게 정답은 아니예요. 제 길이 옳다는 건 아 납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 저를 보고, 안전한 길을 걷는 대신 도전하는 삶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청춘들의 좌표까지 챙기는 꽤 괜찮은 스타, 멋진 그다.

걱정 마 넌 자랑스러운 어제를 살았고 / 걱정 마 넌 후회 없는 내일을 만들 걸 /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살려는 대로 바라보길 / 네 처음 모습 그대로 - ‘마이 스타(My Star)’ 중에서

깊고
찬란한,
미래

비와이의 첫 정규앨범 ‘The blind star’ (2017년 9월 17일 발매)



2019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 우리 시는 전국 최초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한다. 또 온라인 시민 청원과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과 시민 복지에 힘쓰는 등 시민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 시민과 호흡하는 시정을 펼칠 계획이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도움 되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일러스트 전세진



시정 참여 기회 확대

시청 앞 열린 광장 조성

시청 앞 미래광장을 시청사 입구까지 연결해 시청 앞 광장을 누구나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 공간 및 시민 쉼터로 조성한다.

문의 시 공원녹지과 032-440-3662

공론화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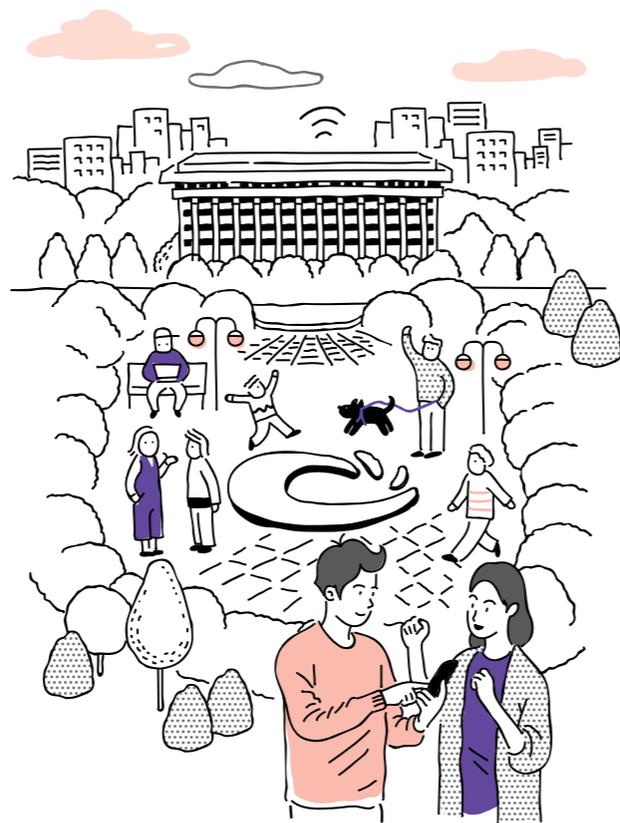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공공 갈등을 시민의 참여와 속의 과정으로 풀어가기 위한 공론화 제도를 상설 운영한다. 공론화 의제가 선정되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론 조사를 실시한다.

문의 시 시민정책담당관실 032-440-2417

온라인 시민 청원 운영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 청원 창구인 '인천은 소통e가득'(cool.incheon.go.kr)을 운영한다.

문의 시 시민정책담당관실 032-440-2418



주민참여예산 운영 확대

지난해 13억 원 규모였던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약 199억 원으로 늘린다. 20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문의 시 예산담당관실 032-440-2243

교육 및 문화 환경 개선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전국 최초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한다. 1인 교복 지원비 26만6천 원 기준으로 동복, 하복 등을 현물로 지원한다.

문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 032-440-2162

영유아부터 초·중·고 전 학년 무상 급식 시행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유치원 영유아부터 초·중·고교까지 전 학년에 걸쳐 무상 급식을 제공한다.

문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 032-440-2177

인천실감콘텐츠 제작지원센터 개관

실감콘텐츠(VR/AR/반응형 콘텐츠 등) 제작을 위한 공간 및 장비를 갖춘 인천실감콘텐츠 제작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인천 소재 기업과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시 인천실감콘텐츠 제작지원센터 032-876-5079

인천항 크루즈전용터미널 개장

오는 4월 인천항에 크루즈전용터미널이 새롭게 개장한다. 출국

장, 입국장, 주차장, 매표소, 편의시설 등을 갖춰 크루즈 관광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다.

문의 인천항만공사 032-890-8000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4월~5월, 10월~11월에 사업계획 공고 예정으로 시 홈페이지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문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 032-440-2173

삶의 질 향상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초등학생들의 등·하원, 간식, 자녀 돌봄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 1곳에서 8곳으로 확대된다.

문의 부평다함께돌봄센터(부평꿈자람터) 032-508-0151

아동 수당 급여 지급 대상 확대

1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문의 시 아동청소년과 032-440-2884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취약 위기 가족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9곳으로 확대된다.

문의 중구 032-763-9337, 동구 032-770-5758, 미추홀구 032-875-2993, 연수구 032-851-2730, 남동구 032-453-6497, 부평구 032-508-0121, 계양구 032-547-1017, 서구 032-569-1548, 강화군 032-932-1005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최고 금액 인상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최고 금액이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문의 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2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가족이 없고 중증도 치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후견심판 청구부터 공공후견인 활동까지 지원한다.

문의 시 건강증진과 032-440-1585

‘찾아가는 닥터-카’ 운영

오는 3월부터 365일 24시간 대기 중인 전문 의료진이 중증외상 환자 발생 시, 닥터-카에 탑승해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아가 신속·정확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시 보건정책과 032-440-2732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광역시 최초 시민안전보험 시행

각종 사고·재난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총 8개 보장 항목에 대해 최고 1,000만 원 한도 내 보장한다.

문의 시 안전정책과 032-440-5735

저지대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확대

여름철 집중호우로 가옥의 침수 등 시민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역류방지장치(역지번) 무상 설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문의 각 구 재난 부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1,900대의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선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문의 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032-440-3012

농촌형 교통 서비스 실시

웅진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교통 취약 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100원, 이용 방법은 전화로 호출.

문의 시 택시화물과 032-440-3804



깨끗한 환경



공해차량운행제한제도(LEZ)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공해 조치 미 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한다.

문의 시 대기보전과 032-440-3550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 단축,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 시행한다.

문의 시 대기보전과 032-440-3522

수소연료자동차 구입비 지원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수소연료자동차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대당 3,250만 원.

문의 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43

전기차 충전 구역 단속 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57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구직 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도입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거주 만19~39세 미취업 청년에게 드림체크카드를 통해 월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 구직 활동비를 지원한다.

문의 시 청년정책과 032-440-2887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Dream for 청년통장’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

들에게 생애 1회 3년간 1천만 원(+이자)까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Dream for 청년통장’을 운영한다.

문의 시 청년정책과 032-440-2887

생활임금제 확대

생활임금(시급 9,600원) 적용 대상을 시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에서 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문의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74

중소기업 신 중년 고용 연장 지원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만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의 고용 연장 지원금을 지원한다.

문의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33

인천 사랑 전자상품권 ‘인천e음’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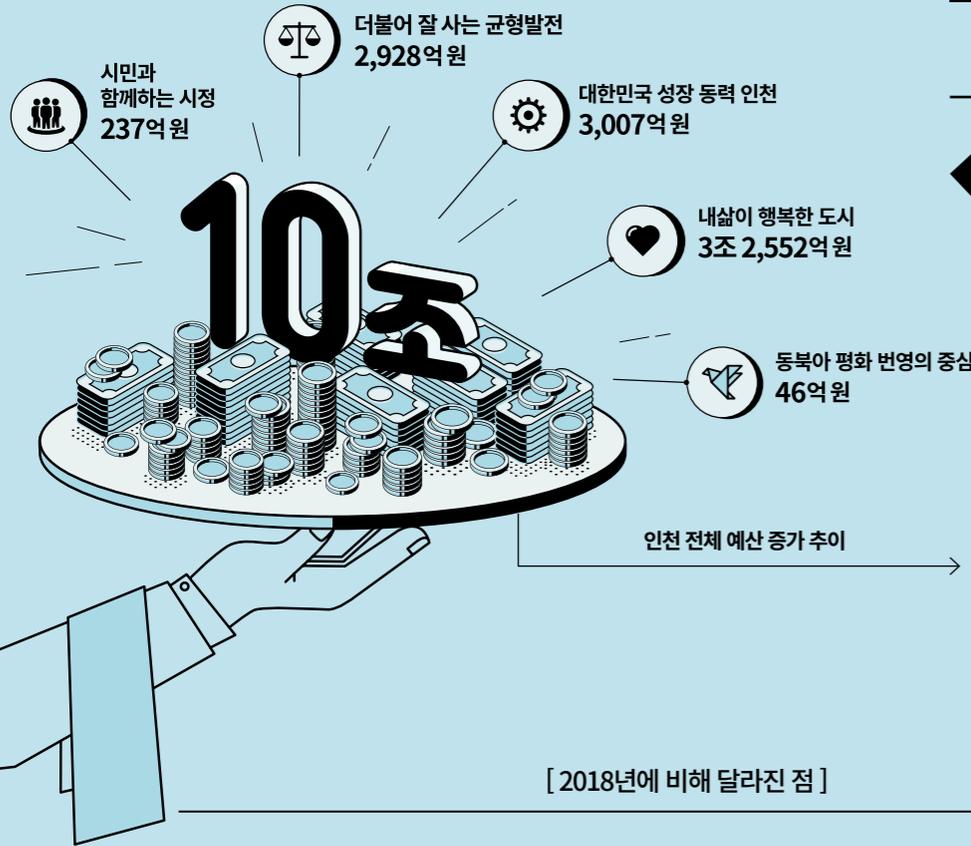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 인천 사랑 전자상품권 ‘인천e음’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모바일 앱에서 간편한 충전과 잔액 관리, 안전한 IC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문의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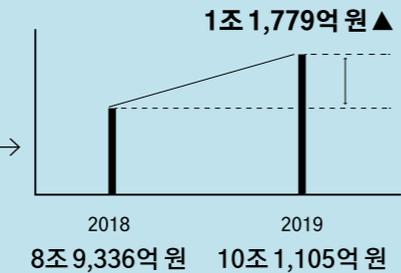
시민을 위한 길 침·眞 10조~眞眞

10조 1,105억 원. 우리 시가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2018년 8조 9,336억 원보다 13.17% 올랐다. 소중한 예산은 주민 참여 사업과 시민 체감 사업에 우선 쓰인다. 시민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을 위한 재정 운영으로 완성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그 1년 살림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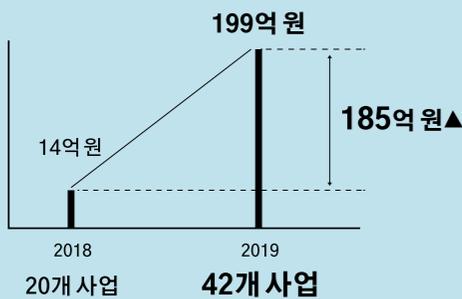


인천 전체 예산
10조 1,105억 원

5대 기본 방향에 역점을 둔
2019년 인천시 예산



주민 참여 예산 대폭 확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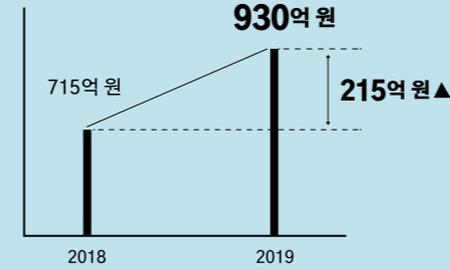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개소 435억 원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통한
더불어 마을 추진
5개소 44억 원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290억 원

[일자리 관련 예산 대폭 확충]



창업 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44억 원**

인천 창업 자금 조성 창업 성장 펀드 사업 **20억 원**

예비 창업자 지원 드림촌 조성 사업 **34억 원**

청년 고용 우수 기업 근로 환경 개선 사업 및 인천 청년 공간 공유지기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사업 등 **148억 원**

[시민 삶이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

전국 최초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고교 무상 급식 확대
944억 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53,444명
43억 원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 14명
2.6억 원

사회 복지 종사자 복지 포인트 3,679명
7억 원

발달 장애인 방과 후 돌봄 224명
7억 원

남녀 분리 화장실 20개소
1.5억 원

[남북 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

남북 교류 협력 자금
20억 원

남북 학생 강화~개성 교차 수학여행
2억 원

강화~개성 고려왕릉 사진전
1억 원

평화 관광 활성화
3.4억 원

투명한 인천,
행복한 시민

인천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낭비센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등 재정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정 정보 공시, 알기 쉬운 인천시 살림살이(결산보고서) 등을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바른 도시,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사 일 로

슈퍼 그래픽 완성한 슈퍼맨들

지난해 인천 내항에 축구장 4개 크기의 벽화가 등장했다. 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곡물을 저장하는 '사일로'에 그려진 벽화는 거대한 규모 덕분에 세계 최대 야외 벽화로 기네스 기록을 인증 받았다. 새로운 기록 뒤에는 늘 사람들이 존재한다. 어려움을 무릅 쓰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세계 신기록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만났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벽화'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일로

홍물에서 명물로 바뀐 '사일로'

40년 전에 지어진 칙칙하고 낡은, 인천 내항의 곡물창고 '사일로'. 지난해 봄 연두색 외벽의 사일로에 흰색 페인트가 덧발라지더니, 마치 여러 권의 책이 꽂혀있는 듯 화려한 색채의 디자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소년이 책과 곡식을 통해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긴 그림은 멀리서도 단박에 알아챌 만큼 크기가 어마어마했다. 그동안 거대한 규모와 투박한 외관 탓에 위험시설이라는 오해를 받았던 '사일로'가 슈퍼 그래픽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순간이었다. 둘레 525m, 높이 48m, 외벽 면적 25,000m²의 사일로에 슈퍼 그래픽을 그려내는 데만 약 100일이 소요됐으며, 투입된 벽화 전문 인력 총 22명, 사용된 페인트 양이 86만 5,400ℓ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대단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이하 IBITP), (주)한국TBT가 협업으로 이뤄낸 기적 같은 결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사 기간과 안전 걱정도 기네스북 실감도 안 났어요.”

“기네스 기록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에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간의 어려움을 딛고 아무 사고 없이 인천의 기술력으로 사일로 슈퍼 그래픽을 완성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시공 감독으로 참여했던 양종원(40) 대성시스템 대표는 촉박한 공사 기간과 작업자의 안전 걱정에도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었다고. “48m 높이의 사일로는 아파트 22층과 맞먹어요. 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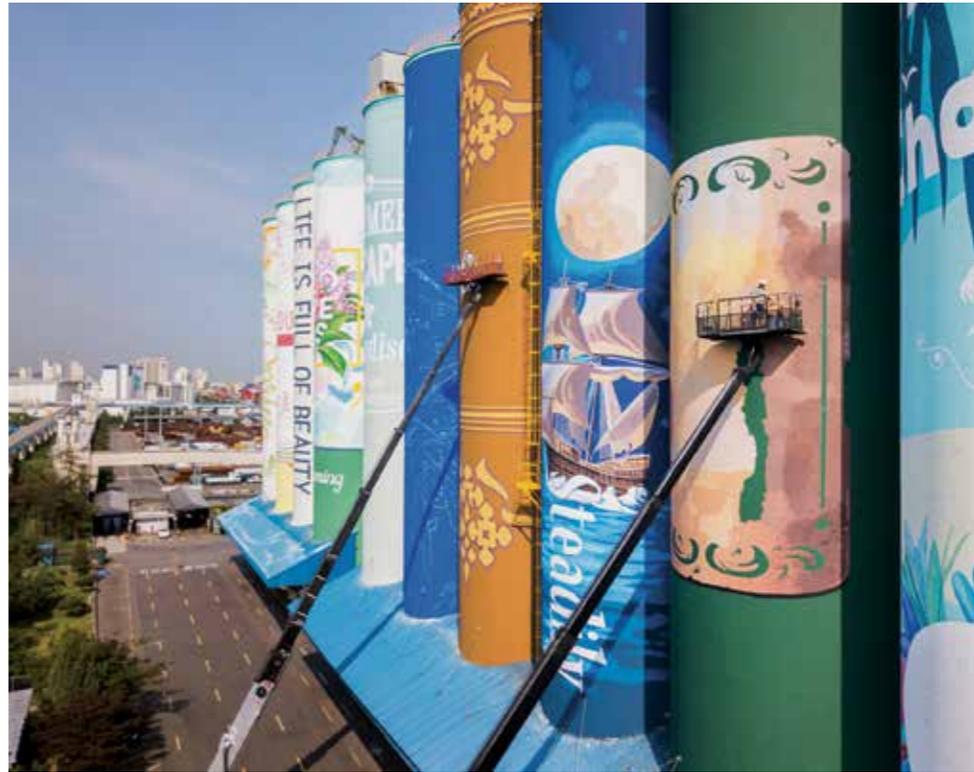




사일로 시공감독을 담당한 양종원 대표



아파트 22층 높이의 사일로에서의 작업은 거센 바닷가 바람때문에 안전이 가장 신경쓰였다.



다나 해안가라 바람이 강해서 스카이크레인을 타고 사일로에 올라가면 장비가 휘청할 정도였어요. 벽화 그리는데는 화공분들이 배타는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IBITP의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작업 상황, 스케치 현황, 색감, 바람의 강도 등을 수시로 체크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담당자들이 아예 사일로 현장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도와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과의 소통과 협업 덕분에 어려운 일들이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용 풍속계를 구입해 매순간 바람의 강도를 측정했다. “지상에서 풍속이 심하다 싶으면 호루라기를 불어서 일시적으로 모든 작업을 중지시켰어요. 하루에서 ‘후~’하고 바람이 불면 상부는 ‘출~렁’거리거든요.” 또 곡물을 보관하는 사일로는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도료는 수성페인트로만 사용됐는데, 사일로의 외벽 면이 반듯하지 않아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히는 과정도 녹록치 않았다. “스케치 작업도 힘들었어요. 특히, 사일로 곡선 부분의 그림이 대칭일 경

우에는 정말 어려웠죠. 바둑판처럼 세세하게 그리드(Grid)를 그려서 하나하나 코드를 입력하고 그 코드를 맞춰 그려나갔는데도 워낙 규모가 크니까 힘들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무사히 끝나고, 인천에 새로운 명물이 만들어진 것 같아 뿌듯하다는 양 대표는 사람들과의 협업에 감동과 더불어 자랑스러움까지 느끼게 됐다고 말한다.

“작업의 어려움도 지금은 따뜻한 기억으로만 남네요.”

“일단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고소공포증이 없어야 했어요. 그림 실력은 기본이고,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작업 속도가 빠른 사람 위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나름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을 모았죠.” 현장에서 모든 화공들을 진두지휘 했던 신종철(57) 화공 반장은 이번 작업에 참여했던 전문 화공들을 모두 직접 섭외했다. 신 반장은 처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스카이크레인 한 대를 불러 작업속도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틀간 테스트를 통해 공사 기간을

계산해보니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거의 전쟁이었죠. 하루 작업자를 몇 명 투입할지, 장비를 얼마나 동원할지...” 책임감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어느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었다. 역시 바람이 문제였다.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어 다행이지만, 작업 내내 안전벨트 고리를 확인하고, 추락이나 기타 안전사고에 다들 예민했었다고 한다. “사일로 벽화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디자인 자체가 무척 세밀하고 섬세해요. 대칭되는 문양과 글씨도 많고, 그림에 명함도 넣어야 해서 작업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림의 그리레이션과 명함 표현을 위해 채색은 스프레이가 아닌, 오로지 롤러와 붓으로만 진행했다. 많은 사람들의 섬세한 손길이 닿은 사일로는 어느새 인천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변신했다. “월미산에서 사일로 보이죠?” 사일로 작업 시 월미도에서 숙박했는데, 퇴근하고 나면 월미산 산책로를 한 바퀴 걸었다는 신 반장. 작업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지만, 월미산에 올랐던 기억이 무척이나 따뜻하게 남는다고.

벽화 디자인은 어린 소년이 책 안으로 물과 밀을 가지고 저장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성장 과정을 의미하는 문구가 16권의 책 제목으로 디자인됐다.



SERIES 1.
AUSTRIA WIEN

도나우(Donau) 강변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의 수도 | 면적 414.6km² | 인구 약 187만 명(2017년 기준)



인천이 묻고, 세계가 답하다 ——
세계가 인정한 ‘살고 싶은’ 도시 탐방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삶의 질 1위
빈의 비밀,
공공임대주택

우리 시 민선 7기 시정 슬로건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다. 거창한 구호 대신 소박하지만 핵심이 담긴 메시지다. 시민 참여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살고 싶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첫번째, 영국의 정치·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선정한 2018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된 오스트리아 빈이다.

글 김남중 국민일보 기자 | 사진 셔터스톡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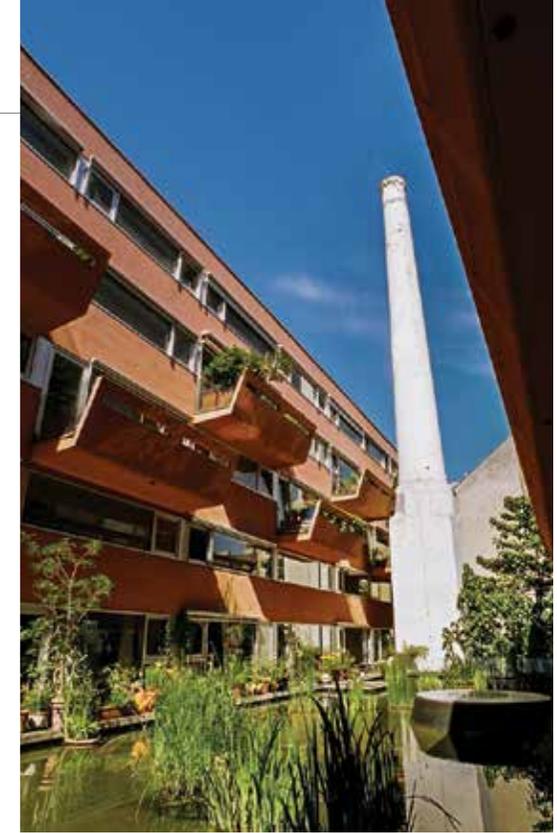
오스트리아(Austria)의 수도 빈(Wien)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다. 미국 머서컨설팅그룹이 해마다 조사하는 ‘도시별 삶의 질 순위 보고서’에서도 9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업무나 학업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일이 끝나도 귀국하지 않고 주저앉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빈이다. 여기 한국 교민들 중에도 그렇게 해서 빈에서 살게 된 경우가 꽤 많다.” 필자가 빈을 방문했을 때 들은 말이다. 사람들이 빈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유럽 굴지의 거대 제국이었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유산, 모차르트와 요한 슈트라우스의 음악, 클림트와 실레의 그림, 슈테판 대성당과 원브룬궁전 같은 건축물 등을 우선 거론할 수 있고, UN 본부를 중심으로 수많은 국제기구를 보유한 ‘UN 도시’로서의 국제성도 매력적인 요소다. 흥미로운 것은 빈의 생활비다. 삶의 질 1위 도시임에도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생활비가 가장 낮은 편이다. 핵심은 주거비에 있다. 주민 60%가 공공



임대주택에 살고, 월세는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지난 7월 인터넷 매체인 <허프포스트코리아(Huffpostkorea)>에 빈에 사는 한 저널리스트의 글이 실렸다. 그는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를 월세 300 유로에 살고 있다며 본인 소득의 10%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좋은 집이 이토록 싸다는 걸 믿을 수 없어 한다”며 “빈 말고 다른 곳에서 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빈은 삶의 질에서 주거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살아갈 집을 구하기 어렵고 수입 대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곳이라면 그 도시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순 없을 것이다.



칼 마르크스 호프 전경



자룩파브릭의 모습



1976년경의 오스트리아 기념우표에 등장한 '칼 마르크스 호프'의 이미지

세계적 주거 복지 시스템, 비엔나 모델

빈의 주거 복지를 상징하는 건물은 '칼 마르크스 호프(Karl Marx Hof)'다. 1930년 빈 외곽에 건축된 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빈의 자랑' '인민의 요새'라 불린다. 공동주택이 4면을 둘러싸고 그 가운데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원을 배치한 구조의 단지들이 너른 녹지대 위로 무려 1,100m나 이어진다. 공동 세탁장, 유치원, 병원, 우체국 등 공용 시설이 전체 건물 면적의 약 20%를 차지한다. 임대주택이란 설명이 없다면 고풍스런 주택 단지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 오래된 주택에 현재도 1,300여 가구 5,500여 명이 살고 있다. 칼 마르크스 호프는 80여 년 전에 이미 위생적이고 저렴하며 공동체성을 간직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고자 했던 빈 시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사민당이 장악한 빈 시정부는 1923년부터 1934년 사이 임대아파트 380개 단지를 지어 6만 가구를 공급하며 공공임대주택을 주

축으로 한 주거 복지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것이 이른바 '비엔나 모델'이다. 1999년 지어진 '자룩파브릭(Sargfabrik)'은 빈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지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룩파브릭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하면 시에서 건축비를 장기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코하우징 방식'으로 건축됐다. 110가구가 사는데 지하에는 공연장과 카페, 수영장에 도서관까지 갖췄다. 2층에는 커다란 공용 부엌이 있다. 서민들이 사는 임대주택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빈의 공공주택은 2,000개 단지가 넘는다고 한다. 빈의 평균 임대료가 파리, 런던, 취리히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살고 싶은 도시란, 도시라는 공간의 매력이라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살고 싶은 도시로 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도시의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방식은 이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주거, 보육, 교육 등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다. 인천시의 살고 싶은 도시라는 방향이 크고 번쩍거리는 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도시가 아니라, 탄탄하고 여유로운 도시,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



“내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민선 7기 시정 슬로건 창안자, 김소영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내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는 결코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다함께 손을 맞잡고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

시
민
시
장
-
김
소
영

갯벌에서 캐낸 ‘동죽’을 함지박 하나 가득 담아, 곡
예사처럼 머리에 이고 오던 엄마. 동무들과 산자락
에서 하던 고무줄놀이와 강통치기.

김소영(43) ‘시민 시장’의 고향 인천에 대한 기억은
온통 갯벌과 바닷가로 채색돼 있다. 지금은 고층 빌
딩 즐비한 국제도시로 변모했지만, 그가 어렸을 때
송도는 갯벌과 논밭이 전부였다. 트래킹하는 것처
럼 산길을 돌아 학교에 다녀야 할 정도였다.

“항해도에서 피란 나오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
님 3대가 함께 살았는데 ‘농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지금의 송도국제도시 초입에 있던, 가구가 얼마 되
지 않는 마을이었지요. 빨래를 할 수 있는 개울도
가깝게 있었어요.”

송도의 작은 ‘어촌’에서 나고 자란 그가 인천 중심
부로 들어온 것은 동춘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부터는 시내에 있는 학교로 보내고 싶어 했던 아버
지는 그를 신흥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 그렇게 신흥
여중, 인화여고를 다니며 동인천 학원 골목 앞 분
식집들, 만남의 장소였던 대한서림, 고급 의류점이
늘어서 있던 신포동 일대가 그의 학창 시절 추억의
목록에 추가됐다.

현업인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직을 시작한 해는 강
화도가 고향인 남편과 결혼해 외동아들을 낳은 2004

년부터다. 대학 선배였던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은
이래, 계산동 월세방에서 시작해 지금의 청라국제도
시에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는 9년이 걸렸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란 민선 7기
시정 슬로건을 생각해낸 건 우연 같은 필연이었다.
“인천은 지역 특색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했어요.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 ‘또 인천이야?’
라는 반응도 싫었구요. 실은 좋은 게 더 많은데 말
이지요. 그러던 차에 시 홈페이지에서 민선 7기 시
정 슬로건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접했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정겨
운 고향 땅이 부정의 이미지로 덧씌워지는 게 속상
하던 차였다. 자식과 제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 외
지 사람들이 너도나도 찾아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를 만들자고 소리치고 싶었다.

“민선 7기의 철학이 공정, 소통, 혁신, 시민참여잖
아요.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는 결코 혼자 만들
수 없는 거구요.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다함께 손을
맞잡고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어가자
는 메시지를 담아본 겁니다.”

그가 말하는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곳일까.
“교육, 교통과 복지가 잘 갖춰져 있고, 산·원도심이
고르게 발전하는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시
가 전체적으로 깨끗하면 더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인천 시민 모두가 시정에 관심과 애
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 아닐까
요. 인천은 보고 즐길 해양 자원이 풍부하고 역사
유적지도 많습니다. 인천국제공항도 있구요. 아름
답고 좋은 것을 찾아 즐기고, 널리 알리는 것도 우
리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청라호수공원 앞에 선 김소영 시민 시장의 미소가
겨울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반짝였다.



지난해 10월 8일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슬로건을 발표하는 김소영씨

손안에서 즐기는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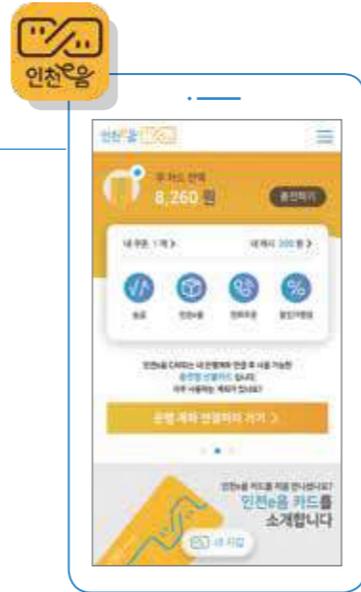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횟수와 시간이 점점 늘어나며, 일상생활 많은 부분에서 스마트폰이 활용되고 있다. 이제는 모바일 서비스로 접근 불가능한 것을 찾기 힘들 정도. 인천시도 시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아두면 유용한 앱 정보를 모았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주는 '인처너카드(인천e음)'

'인처너카드(인천e음)'은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를 연계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사용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자가 앱을 통해 발급받은 '인천e음 카드'를 이용하면 결제 시 3~7%의 선 할인 혜택을 받게 되고, 연말정산 시 현금과 같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소비 성향을 앱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부터는 인처너카드(인천e음) 앱을 통해 주문 배달과 쇼핑물 이용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업체에게는 카드 수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해 출시한 앱 '인처너카드'는 시민 공모에 의해 '인천e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

이용 방법 앱스토어에서 '인처너카드' 또는 '인천e음' 검색 후 설치 문의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2



실종 및 범죄를 예방해주는 '안심in'

가족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안심in'을 설치해보자. '안심in'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범죄 예방 서비스 앱으로, 특히 어린 자녀, 여성, 장애인, 치매 노인을 위한 유용한 기능을 갖췄다. 도착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안심귀가서비스 외에도, '긴급도움요청'을 클릭하면 관제센터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위치가 전송되고,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사용자 주변 CCTV를 통해 상황 파악한 후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특히, 활동 반경 이탈 방지 서비스와 휴대폰 움직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아동이나 치매 노인의 실종 예방, 독거노인 또는 1인 거주자의 고독사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 앱스토어에서 '인천 안심' 또는 '안심인' 검색 후 설치 문의 시 안전정책과 032-440-5743



문화예술정보를 한 눈에 '인천문화정보아이큐'

일일이 묻고 검색하지 않아도 인천의 모든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 시설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고 싶다면 '인천문화정보아이큐'만큼 유용한 앱은 없을 듯. '인천문화정보아이큐' 앱은 인천 지역 약 500개 문화 공간의 문화 행사를 장소별, 일시별로 제공할 뿐 아니라, 예약 및 예매, 발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생애 주기별 맞춤 문화 정보(문화픽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치 서비스 기능으로 사용자 주변 시설의 행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SNS 공유하기 기능으로 지인에게 공연 정보를 추천할 수도 있다.

이용 방법 앱스토어에서 '인천문화' 또는 '인천아이큐' 검색 후 설치 문의 인천문화재단 032-455-7113

장례 문화도 스마트하게 '인천가족공원 모바일민원센터'

장사관리시스템 모바일 앱 '인천가족공원 모바일민원센터'는 장례 문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직접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던 장례 시설 사용 기간 연장 및 묘지 관리비 납부를 앱을 통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또 화장 예약 및 대기 현황의 실시간 조회와 고인 위치 확인, 유족들의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정보 변경 등도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이용 방법 앱스토어에서 '인천가족공원' 검색 후 설치 문의 인천시설관리공단 032-510-1922



잠깐! 앞으로 새로 출시되는 인천 앱은?

- 차세대 수용가 정보 시스템**
우리 시는 올해 안으로 '차세대 수용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도 요금 조회·납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창(Window)**
'창(Window)'은 지난해 '인천 청년 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 창업 정보 전달 및 커뮤니티 앱이다. 시는 향후 '창업 마을 드림촌' 조성 시 창업 종합 정보 공유 플랫폼 앱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해 바다엔 수천 개의 ‘용치’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한 쇠 말뚝입니다. 이제, 오랜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를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 인천광역시장



백령도 진촌 바닷가 ©사진 류창현

이념의 파도를 넘어, 평화의 바다로

바야흐로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 이념의 파도가 시퍼렇게 달려들던 서해에도 평화의 바람이 분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반세기가 지났지만 서쪽 바다는 위태롭게 출렁거렸다.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서해평화 사진전: 사선에서 생명선으로(from Death to Life)’. 아픔을 딛고 희망으로 일어난 한반도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from Death to Life

사선에서 생명선으로

2018년 4월 24일 0시, 민간인통제구역. 거짓말처럼 온 세상이 조용해졌다.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55년간 대북·대남 방송을 쏟아내던 확성기가 말문을 닫은 것이다. 날선 이념의 소리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적막이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야 살 만하다며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놓았다. 1953년 정전협정을 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은 굴곡의 역사 한복판에서 출렁거렸다. 서해 경계선의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2002년 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북측 해안포 사격.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포격은, 정전 이후 북한이 남한 땅에 연이어 포격을 가한 사건이었다. 서해 5도는 물론 강화도와 교동도 등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은 공포에 휩싸였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포 얼어붙었던 서쪽 바다에도 봄이 오고 있다. 군사 분야 합의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국제상선공통망’이 10년 만에 정상화됐다. 이로써 어민들의 조업 규제가 완화되고 조업 구역의 확장 가능성이 열렸다. 언젠가 남북의 뱃사람들이 함께 만선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찾아올 것이다.

인천관광공사가 오는 26일까지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컨벤시아에서 ‘서해평화 사진전’을 연다.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사진전은 ‘사선에서 생명선으로(From Death to Life)’를 부제로 총 4장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전시는 1장 ‘독립과 분단’, 2장 ‘전쟁과 사선의 DMZ’, 3장 ‘휴머니즘 그리고 통일과 평화의 길’, 4장 ‘화합과 생명의 땅 한반도’로 짜여졌다.

베트남전쟁 종군 사진기자 필립 존스 그리피스(Philip Jones Griffiths)와 선데이 텔레그래프(The Sunday Telegraph)의 사진기자 스투어트 프랭클린(Stuart Franklin) 등 세계적인 보도 사진작가 그룹 ‘매그넘(Magnum)’ 소속의 작가들 비롯해 강민석, 강재훈, 김녕만, 김연수 등 국내 사진작가들의 작품 66점을 선보인다. 서해 평화 협력의 중심에 있는 인천을 배경으로 한 사진 9점과 체코대사관이 소장하고 있는 1950년대 북한 모습이 담긴 사진 5점도 공개됐다.

6·25 전쟁으로 한반도가 두 동강 나면서, 남과 북은 닿을 수 없는 머나먼 땅이 됐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강산이 일곱 번 변했다. 하지만 함께 살아온 시간이 5,000년이다. 굴곡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본 바다가, 욕심도 이념도 부질없다는 듯 평화롭게 넘실거린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과 가족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세월, 어느덧 기대는 체념이 되어 갔다. 죽기 전에 고향 땅 한번 밟아보려 했던, 할아버지의 소원은 이뤄질 수 있을까. 그러기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고, 몸은 너무 늙었다.

1993. 1. 23 | 김녕만
DMZ 철책선을 붙들고 오열하는 노인. 이 철책선이 들어섰을 당시 그는 옛된 소년이었을 것이다. 두고 온 고향을 잊지 못하는 실항민의 아픔이 절절히 전해진다.



제1장 : 독립과 분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소(美蘇) 점령군이 군사 분할선을 그었다. 38선이다. 강대국들의 군사적 편의에 따라 그어진 이 선으로 한반도는 두 동강 났다. 하늘, 바다, 땅만 나뉘는 게 아니다. 잠시 일을 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길도 묶였다. 잠시 머물다 고향으로 갈 생각이었지만, 세월은 흐르고 흘러 강산이 일곱 번 변했다.

제2장 : 전쟁과 사선의 DMZ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남한이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전차를 240대 앞세워 남침했다. 6·25전쟁, 한민족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어 야만 했던 가혹한 역사가 시작됐다. 한반도가 피로 물들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육지에는 동서 250km에 이르는 휴전선이, 해상에는 서해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과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NLL)이 그어졌다.

‘작전 암호명 크로마이트(Operation Chromite)’.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15일 연합군의 사령관 맥아더가 주도한 작전으로 전세를 단번에 바꾸어놓았다.



02



03



01

01 1932 윤봉길 의사 선서 장면. 김구가 김현구에게 준 사진이다. 소장처 독립기념관

02 1950. 9. 15 인천 해안에 병력과 장비를 양륙하는 4척의 전차상륙함. 소장처 미국 국립문서기록 관리청(NARA)

03 1950. 9. 16 | Ronald L. Hancock 미 제1해병사단과 한국 해병이 인천 시내에 진입했을 때, 부모를 잃고 길가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어린 소녀.



04



05



06

04 2003 | 이기명 판문점 내부. 북한 쪽을 향해 촬영할 수 있지만, 우리 경비 쪽을 향해서는 촬영할 수 없다. 이곳에서는 철저히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규칙만이 허용된다.

05 2018. 9. 20 | 평양 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정상 최초로 함께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랐다.

03 2010. 11 | 박중우 임진강이 남쪽으로 흘러드는 태풍 전망대 앞.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날갯짓이 자유롭다.

제3장 : 휴머니즘 그리고 통일과 평화의 길

전쟁 그리고 정전협정으로 1,000만 이산가족이 생겨났다. 쏟아지는 포탄을 피해 낯선 땅으로 떠밀려온 사람들은, 전쟁보다 더 혹독한 가족 잃은 슬픔을 견뎌야 했다. 죽기 전에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싶은 이들의 소원은 이뤄질 수 있을까. 분명한 건,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4장 : 화합과 생명의 땅 한반도

60년간 침묵하고 있는 휴전선의 철책. 그 안엔 붉은 피가 스민 녹슨 철모가 나뒹군다. DMZ는 ‘비공식적으로 무장한 시대’이자 ‘실질적 중무장 시대’다. 그 너머로 서로를 향한 총구를 겨우지 못하는 것이 민족의 가혹한 현실이다. 하지만 자연은 한반도의 땅과 바다를 남북으로 가르지 않는다.

OECD 세계포럼기념 서해평화 사진전
사선에서 생명선으로(from Death to Life)

기간 2019년 2월 28일(목)까지
장소 송도컨벤시아
관람료 무료
문의 인천관광공사 전시팀 032-210-1027

덕적도의 노을



영종국제도시 왕산요트경기장

인천의 색色 기억 속에 저장하다

글·사진 최병관 사진가·시인

최병관은 남동구 산뒤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사라져가는 고향 풍경을 사진에 담고 있다.

인천은 축복받은 땅이다. 인천 사람들 또한 축복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세계 제일의 ‘인천국제공항’과 역사 깊은 ‘인천항’을 통해 전 세계로 이어진다는 자체가 자랑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된다면 전쟁으로 끊어진 철길과 도로가 연결되어 하늘, 땅, 바닷길이 모두 인천과 이어지게 된다.

그뿐 아니다. 보석 같은 섬들이 인천 앞바다에 촘촘히 떠있다. 그 섬들은 천혜의 관광 자원이다. 미래의 먹거리는 관광산업이라고 한다. 인류 문명이 발전할수록 관광산업이 주목을 받게 된다. 인천의 섬들은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영흥도 앞바다, 또 다른 섬

그중에서도 ‘저녁노을’은 감탄을 자아낼 만큼 환상적이다. 노을과 하얀 모래밭, 소나무 숲, 시원한 바닷바람이 어우러진 풍경에는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 게다가 인천에는 ‘아름다운 자연색’이 있다. 색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며 도시를 기억 속에 오래도록 저장시킨다.

사진가에게는 아름다운 색을 볼 수 있는 영감이 존재한다. 그래서 인천의 색이 아름답고 곱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미래가 있는 인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인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이 일등 도시로 우뚝 서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CULTURE CALENDAR

JANUARY 2019

01

이달의 展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
1월 4일(금)~1월 10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아트캘린더전 2부
1월 12일(토)~1월 25일(금)
갤러리지오

데코아트예술작품 송립전
1월 18일(금)~1월 23일(수)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37회 최경수 개인전
1월 26일(토)~2월 1일(금)
갤러리지오

박진이 개인전 ‘치유적 풍경 休’
1월 31일(목)까지
인천아트플랫폼 원도우갤러리

브릭플레이
1월 31일(목)까지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화소

신경섭 : COSMOS
1월 31일(목)까지
코스모 40

과올라 : 어시메트릭 아카이로지
2월 24일(일)까지
파라다이스 아트스페이스

OECD세계포럼 기념 서해평화 사진전
2월 28일(목)까지
송도컨벤시아 신관 1층

라이크 다이노 공룡대전
3월 3일(일)까지
송도컨벤시아 4홀

01
뮤지컬 ‘신데렐라’

레미어린극장
2018년 1월 12일까지(1월 7일 휴관)
공연 시간 아래 연락처 문의
전석 1만 2,000원
☎ 032-507-5961

02
뮤지컬 ‘피터팬’

인천어린이과학관 1층 공연장
1월 2일~1월 27일(매주 월요일 휴관)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2만 5,000원
☎ 032-205-2505

08

어린이 참여 놀이극 ‘오즈를 찾아서’

트리플스트리트 케이 라이브
1월 8일~1월 20일
오전 11시~오후 2시
전석 1만 원
☎ 032-310-9691~4

17

신년 음악회

아트센터 인천
오후 8시
전석 2만 원
☎ 032-453-7700

18

인천시립교향악단 2019 신년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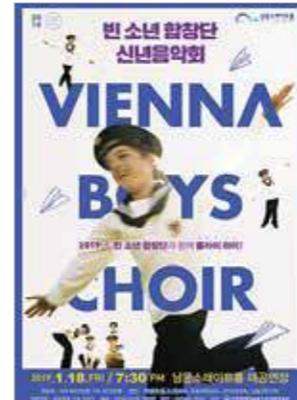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000원
☎ 1588-2341



18

빈 소년합창단 신년 음악회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후 7시 30분
R석 6만 원, S석 4만 5,000원
☎ 032-460-0560



19

2019 신년 콘서트 ‘BEST OF THE BEST’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 1588-2341



음악으로 그리는
브라보 빈센트 별이 빛나는 밤에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2만 원
☎ 031-701-8409

20

미추홀시민오케스트라
13회 콘서트 ‘GLAMOROUS’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010-5822-8501

25

2019 신년 음악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500-2000



25

2019 패밀리 뮤지컬
‘핑크퐁랜드-황금별을 찾아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9시 40분~11시 10분
R석 5만 5,000원, S석 4만 4,000원
☎ 1566-6551



제3회 부평시민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10-4066-8666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트리플스트리트 케이 라이브
1월 25일~2월 24일
주중 오전 11시, 주·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
1만 2,000원
☎ 032-310-9691~4

26-27

2019 패밀리 뮤지컬
‘핑크퐁랜드-황금별을 찾아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오후 2시~4시 30분
R석 5만 5,000원, S석 4만 4,000원
☎ 1566-6551

제7회 라루체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무료
☎ 010-9244-9892



30

제24회 박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전석 1만 원
☎ 032-810-8505

인천을 대표하는 생활 예술 오케스트라 미추홀시민오케스트라 열세 번째 콘서트



2011년 인천시민오케스트라로 창단해 현재까지 인천에서 흔치 않은 정통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미추홀시민오케스트라가 열세 번째 콘서트를 개최한다. 미추홀시민오케스트라는 순수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구성된 풀 오케스트라로, 교사와 의료인, 자영업, 회사원,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10~60대에 이르는 폭넓은 세대의 인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격조 있는 고전 음악부터 요즘 영화로 개봉되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록밴드 퀸(Queen)의 음악까지,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이라면 장르를 가리지 않는 열린 오케스트라. 특정 연령대나 종교,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음악만 즐기는 태도로 연주하며 소통하는 미추홀시민오케스트라의 열세 번째 공연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취향대로 즐기는

2 0 1 9

나의 첫 공연

춡다고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공연들이 1월 한 달간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품격 있는 클래식부터 어깨가 들썩이는 뮤지컬, 아이에게 점수 따는 어린이극까지. 취향대로 즐기는 2019년의 첫 공연을 지금 'PICK'하세요.



□ CLASSIC

클래식 콘서트로 올 겨울을 우아하게 아트센터 인천 '신년음악회'

역사적인 그랜드 오픈과 함께 개관 기념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아트센터 인천. 세계적 수준의 콘서트홀에서 2019년 첫 공연이 개최됩니다.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신년 음악회에서는 국내 최고의 여성 지휘자로 솟꼽히는 여자경의 지휘로, 뮤직 그룹 세움(SE:UM)의 협연과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이현의 노래를 디토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예매 ☎ www.aci.or.kr ☎ 032-453-7700
일시 1월 17일 오후 8시
장소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티켓 전석 2만 원

□ MUSICAL

한겨울 추위 날리는 열정적인 뮤지컬 2019 신년 콘서트 'BEST OF THE BEST'

'BEST OF THE BEST', 그 이름처럼 올 겨울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게 될 클래식&뮤지컬 콘서트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특히 뮤지컬 티켓 파워 독보적 1위에 빛나는 디바 옥주현과 뮤지컬계의 떠오르는 황태자 마이클 리가 호흡을 맞춘 감동의 갈라 콘서트는 관객들을 환상적인 뮤지컬 스토리 속으로 초대합니다.

문의 및 예매 ☎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1월 19일 오후 7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 COLLABORATION

음악과 미술, 미디어 아트의 환상적인 콜라보 '브라보 빈센트 - 별이 빛나는 밤에'

전 세계인에게 가장 사랑 받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 음악, 미디어아트와 만나 새롭게 재탄생됩니다. 고흐의 수많은 명작들 중 7개의 작품을 선정해 작품에 얽힌 이야기들을 서정적으로 풀어내는 색다른 방식의 콜라보레이션 무대. 국내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그리게 될 위대하고 아름다운 공연을 직접 만나보세요.

문의 및 예매 ☎ art.incheon.go.kr ☎ 031-701-8409
일시 1월 19일 오후 5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2만 원

□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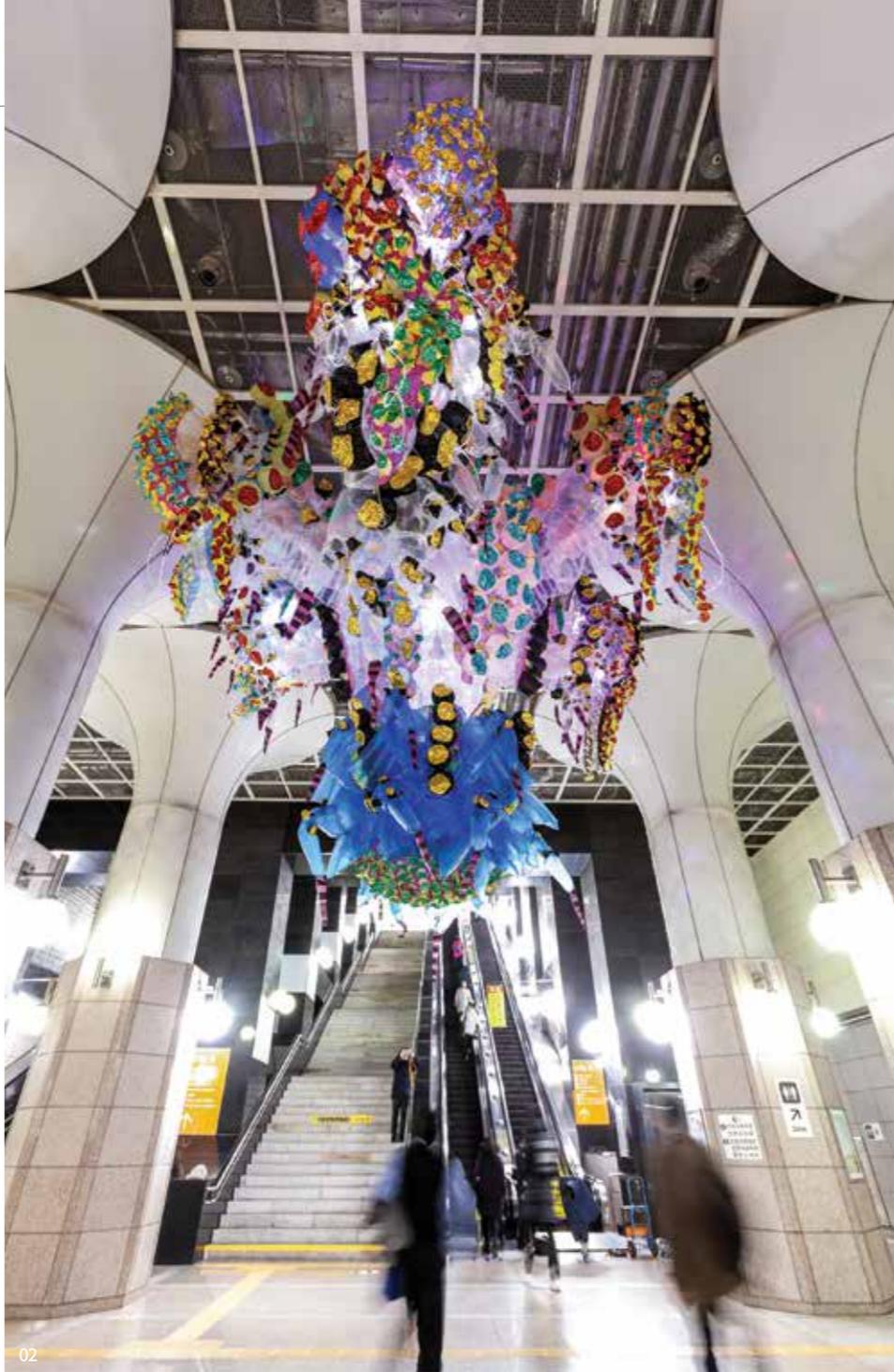
아이와 함께 떠나는 동심의 세계 3D 가족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오랫 동안 사랑 받고 있는 명작 동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원작으로 한 가족 뮤지컬이 3D 입체 동화 형식으로 관객을 찾아옵니다. 화려한 무대 연출과 퍼포먼스가 가미된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동심의 세계, 2019년 겨울이 즐거워집니다.

문의 및 예매 ☎ 032-310-9691~4
일시 1월 25일~2월 24일, 주중 오전 11시,
주·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
장소 트리플스트리트 케이 라이브
티켓 전석 1만 2,000원



01



02

ON THE UNDERGROUND GROUND U

지하철, 예술을 입다

글 이 탈 인천예술정거장 프로젝트 예술감독(아티스트, 문화수리공 대표)

01 강용면 은고지신문
02 이병찬 소비생태계

2018 인천예술정거장 프로젝트 ‘언더그라운드 온 더 그라운드 (Underground On the ground)’는 인천이라는 지역성과 세계 속 인천이라는 글로컬(Glocal)한 사유를 담아낸다. 혼종성의 공간 연구와 다층적인 서사들이 펼쳐지는 지하철 공간을 시험하고자 했다. 특히, 언제부터인가 사랑의 자리에 혐오가 들어선 우리의 현실, 혼재된 이 데올로기가 빚어낸 충돌을 배려와 사랑으로 자리바꿈 하고 싶었다.

그 방법으로 여성의 사회적 의미를 모티브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여성 미술가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와 쿠바 출신 난민으로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면서 40세 젊은 나이에 에이즈로 요절한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Felix Gonzalez-Torres)의 작품을 섭외하여 작품에 담긴 컨텍스트(Context)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이면을 드러내 고자 했다. 바바라는 여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을 기약했으나,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재단과는 40여 일간 밤잠 설치며 대화를 이끈 끝에 11월 1일 참여를 결정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 삼성이 운영하는 플라토에서 토레스 전시가 열렸을 뿐, 이번이 두 번째 한국전 참여이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미술관이 아닌 공공미술에 참여하는 첫 사례다. 전문적인 기획과 큐레이팅으로 세계적 아티스트 영입이 가능했다는 점은 우리를 흥분시켰다. 더욱이 토레스 재단은 우리 측에서 요구한 작품이 아닌 한국에 미발표된 작품을 선정하는 섬세함과 엄밀함까지 보여주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또 다른 의미는 한국 아방가르드의 역사인 김구림, 이승택, 이권용, 이강소, 성능경 등의 참여다. 복합적인 실험 예술들을 하나의 섹션으로 구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참여를 승낙하여 이 또한 새로운 실험적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의도는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의도만큼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술정거장의 의도대로 의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련 관계자들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미술관 관람은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공공의 장소로 자리를 옮긴 예술 작품은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최고의 문화 서비스다. 이번 ‘언더그라운드 온 더 그라운드’ 전을 통해 형성된 예술정거장이 동질적 공간으로서의 공공(公共)이 아니라, ‘동질적 의미’를 찾고 ‘공공 향유’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장(Ground)’이 되기를 기대한다.



03



04



05



06

03 언사이트 한길긴뜨기
04 황문정 안부벤치
05 설총식 자리만들기-명퇴예정자
06 이종구 대지의 손

IMAGE

NEWS



#2019년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 본격 시행
#전국 광역시 중 최초 도입

01



#각종 자연재해, 재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최대 1,000만 원 보장

02



연령, 성별, 직업,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인천 시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 인천시에 주소지를 둔
#모든 시민이 보장 대상(외국인 포함)

03



시민안전보험과 함께 #재난 대응을 위한 #인천형 안전
보장회의 신설 #시민 안전 책임지는 #든든한 인천!

※ 문의 032-120

04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우리 시 국비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인천의 각종 현안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 위기 단체에서 행정안전부 평가 재정 등급 '최우수 단체'로 올라섰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400개 늘려 3만 2,719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호수와 수로를 연결해 친수 공간으로 만드는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이 오는 3월 첫 삽을 뜹니다.

인천 지역 5개항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320여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소무의항, 후포항, 야달항, 답동항, 대이작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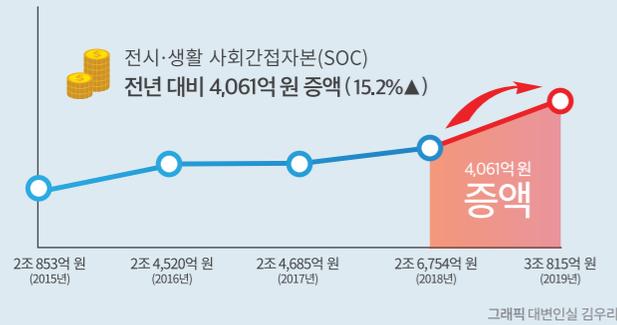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의 관객 편의 증대를 위해 중앙 계단과 전시장 입구 사이에 야외용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NEWS

BRIEF

2019년 국비 첫 '3조 원' 돌파, 현안 사업 청신호



우리 시 국비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올해 인천 국비 예산은 총 3조 81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 61억 원(15.2%) 늘어났다. 이로써 인천시 국비 예산은 2014년 처음 2조 원을 돌파한 지 5년 만에 3조 원을 돌파하며 최대 국비 예산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사상 최대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인천의 각종 현안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3조 원 국비 시대가 열리면서 시민 편익과 직결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시 재정관리담당관실 032-440-1663

쇠뿔고개 등 '2019 더불어 마을' 5곳 선정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중구 전동 구역과 동구 우각로 쇠뿔고개, 미출홀구 도화역 북측 구역, 서구 가좌3동, 강화군 온수마을 등 5곳을 '더불어 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더불어 마을로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원 받아 기반 시설 확충과 빈집·노후 주택 등을 정비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3년간 구역별 최대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현지 개량 방식으로 마을을 정비한다.

문의 시 주거재생과 032-440-3478

수도권 최초 '드론전용시험장' 조성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수도권 최초로 '드론전용시험장'이 들어선다. 우리 시는 지난해 말 환경부·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과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드론 조정 비행 시험장 구축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매립지 안 4만㎡에 60억 원을 들여 통제센터·정비고·이착륙장·활주로 등 드론 관련 시설을 짓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드론전용시험장 시설 구축 작업을 진행해 2020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시 항공과 032-440-4808



'인천 청년 정책 제안 공모전' 당선작 4건 선정

우리 시가 청년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년 당사자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총 47건의 다양한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4건을 최종 선정했다.

장려상으로는 '청년 창업 정보 전달 및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창(Window) 앱' 구축과 '청년 정책 홍보 어플리케이션과 동영상' 제안이 선정됐고 노력상으로는 '청년 건강 지원 정책(청년마음터)', '중소기업 및 강소기업 멘토와 취업 준비생의 멘티 교육' 제안이 선정됐다.

문의 시 청년정책과 032-440-4164

오늘도 맑음, 대기질 3년 연속 개선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우리 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지난 2015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우리 시는 인천 지역의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질 전반에 대한 측정 결과를 종합 분석한 '2017년 대기질 평가 보고서'를 환경 관련 부서, 연구기관 및 언론사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시 환경정보공개사이트(air.incheon.go.kr)에서 전자책 형태로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문의 시 보건환경연구원 032-440-5546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축 심의 통과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송도국제업무단지 센트럴공원 내 1만9,41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5,650㎡ 규모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유·무형의 전 세계 문자 자료를 수집해 전시할 예정이다. 문자 언어 연구와 학술 교류, 세계 문화 체험 등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문의 시 문화재과 032-440-4488

재정 위기 단체서 '재정 등급 최우수 지자체'로

우리 시가 재정 위기 단체에서 행정안전부 평가 재정 등급 '최우수 단체'로 올라섰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지

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에서 인천시는 종합 점수 기준 특별·광역시 중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종합 점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았다.

문의 시 재정관리담당관실 032-440-1674

'동아시아 문화 도시 인천' 슬로건 선포

우리 시는 2019년 동아시아 문화 도시 슬로건으로 '문화를 잇는 하늘길, 평화를 여는 바닷길, 인천'을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25일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시민 공모를 진행해 136건의 제안을 받았고, 직원 설문 조사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우수작을 뽑았다.

한·중·일 3국은 2014년부터 각국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선정하고 있다. 인천은 국내에서 6번째 문화 도시로 선정됐다.

문의 시 문화예술과 032-440-4023

호수~수로 연결, '송도 워터프런트' 3월 첫 삽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이 오는 3월 첫 삽을 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말 송도 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조달청에 시설 공사 계약을 의뢰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 사업은 2021년까지 734억 원을 투입해 인천 앞바다와 송도 6공구 호수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결 수로 930m와 교량 4개, 수문 1개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822



노인일자리 3만 2,000개로 확대



우리 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400개 늘려 3만 2,719개를 만들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분야는 실버택배, 등하굣길 도우미, 환경 지킴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등이다.

시는 2020년부터 해마다 노인 일자리를 1,000개씩 늘려 2022년에는 3만 6,000개까지 만들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천 지역 10개 군·구의 노인 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 노인회 등이 맡아 진행한다.

문의 시 노인정책과 032-440-2837

십정2구역 도시 재생 사업 본격 착수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아파트 건설 공사 착공과 함께 정비 사업과 연계한 도시 재생 시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십정2구역은 인천의 발전과 함께 태동된 마을로 주민들의 삶의 흔적과 도시 변천 과정 및 공간적 특성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장소의 흔’을 전달하겠다는 콘셉트로 도시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의 시 재정관리담당관실 032-440-1692

문성학원 자연사 표본, 강화자연사박물관으로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관리하던 자연사 표본 1,052종, 5,669점(천연기념물 38점, 보호종 92점)을 이달 안 강화자연사박물관으로 이전된다. 이번에 문성학원이 기증한 천연기념물 등 자연사 박물관 6,000여 점이 이전 전시되면 수도권 제일의 자연사박물관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 032-440-2162

부평·주안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한 ‘2019년도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에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는 청년 고용 여건을 감안해 노후 산업단지를 창업과 혁신 생태계, 쾌적한 근로·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로 바꾸는 사업이다. 선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 펀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산업단지 편의 시설 확충 사업들을 국비로 우선 지원한다.

문의 시 산업진흥과 032-440-4287

소무의항 등 인천 5개항 ‘어촌뉴딜 300’ 선정

인천 지역 5개항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320여억 원을 확보했다. 우리 시에서는 중구 소무의항, 강화군 후포항, 옹진군 야달항, 답동항, 대이작항 등 총 5개곳이 포함됐다. 시는 올해부터 2개년에 걸쳐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어항을 대상으로 어항 기반 시설, 어촌 관광 시설 등 어촌의 혁신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시 수산과 032-440-4852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용 승강기 설치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 관객 편의 증대를 위해 중앙 계단과 전시장 입구 사이에 야외용 승강기를 설치했다. 야외용 승강기는 예술회관역 6번 출구로부터 약 15m 거리에 위치해 있다. 특히, 대공연장 앞 옥상에는 비오톱(도시소생태계) 공간이 마련돼 야외용 승강기를 타고 오가며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인천문화예술회관 032-420-2723



인천 지식 재산 투자 조합 결성

우리 시가 시장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식재산권(특허)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조합을 만든다. 시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올해 안으로 110억 원 규모 투자 조합을 결성할 예정이다.

투자 조합은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 심사를 진행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조합이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사업화·후속 투자 연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시 산업진흥과 032-440-4263

종합민원실 ‘민원 편의 중심 행복 공간’ 탈바꿈

우리 시가 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시는 민원 담당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대를 넓히고 조명을 LED로 교체했으며, 민원인 전용 컴퓨터 교체, 휴대폰 급속 충전기 설치, 모유 수유실 개선 등 민원인 편의 시설도 대폭 확충했다. 또한, 민원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문가 시민상담센터 및 개별 상담실을 독립 공간으로 설치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이 줄을 서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

문의 시 시민봉사과 032-440-2582

추천할 만한 깨끗한 숙소와 목욕탕은 어디?

우리 시가 지역 내 숙박업소·목욕탕·세탁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가운데 45%가 최우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 1,270곳, 목욕탕 243곳, 세탁소 1,444곳 등 모두 2,957곳 중 1,343곳이 90점 이상을 받아 최우수 업소로 선정됐다. 우수 업소는 872곳, 취약 업소는 618곳으로 지정됐다. 이번 결과의 자세한 사항은 시 및 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시 위생안전과 032-440-2793

‘아트센터 인천’ 시민 품에 안기다



‘아트센터 인천’이 완공 2년 5개월여 만에 인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2월 26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식을 가졌다.

2008년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주거 단지 개발 이익금으로 ‘아트센터 인천’을 건립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번 기부채납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아트센터 인천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경제자유구역청 032-453-7193

부설 주차장 개방 최대 2,000만 원 지원

우리 시는 올해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의 참여 혜택을 높여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유휴 시간대 주차장을 개방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웃과 주차장을 공유하는 건물 소유자를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주차 시설 확충 사업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방 주차장을 신청하는 소유주에게 시설 지원비로 최소 개방 때 최대 2,000만 원, 재개방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소 개방 면수 기준도 기존 10면(학교 20면)에서 5면으로 하향 조정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문의 시 교통관리과 032-440-8371

COUNCIL NEWS

제8대 인천시의회, 열린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11월 실시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모두 588건으로 2017년에 비해 140건 증가했으며, 요구 자료도 54건 늘어난 1,27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감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시의회 지적 사항 등이 증가하면서 시 정책에 대한 추진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별 행감 지적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14건, 기획행정위원회 102건, 문화복지위원회 110건, 산업경제위원회 112건, 건설교통위원회 161건, 교육위원회 89건이다.

시의회는 이달 안에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랑의 쌀, 성금 등 따뜻한 의정 행보 이어져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12월 14일 '2018년 사랑의 쌀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120만 원을 전달했다. 시의원들은 평소 급여의 일부를 나누며 보육 시설 아동을 지원해왔다. 이번 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쌀은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350세대에 전달됐다. 12월 19일에는 2018년 크리스마스 쌀 증정식을 갖고,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지회장 김실)에 결핵 퇴치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용범 의장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말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분들도 많다.”며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 의회 체험 우수 소감문 121편 시상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2018년도 의정아카데미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 체험 우수 소감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8,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경험했으며, 지난해는 42개교 1,343명이 참가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정아카데미 운영 최초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감문을 공모해 청소년 체험 우수 소감문을 시상했다. 소감문 공모에는 38개교 276명이 참가했으며, 1·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121편이 선정됐다.

기획행정위, 재난·안전, 민방위 시설 현장 점검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재난 및 안전, 민방위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시민안전본부로부터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은 후, 서구 시천동에 위치한 ‘시천교 염수 분사 장치’를 둘러보고, 강화군으로 이동해 국화2리와 선원면 주민 대피 시설 및 민방위 경보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 1·3공구 지하 공동구의 전력, 상수도, 지역난방, 통신 시설, 중수도, 쓰레기 수송관 등을 살펴보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는 한편, 동절기 대비 시설 안전을 거듭 당부했다.

건설교통위, 청라 GRT 사업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13일 인천시 교통정책과장,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자 등과 함께 청라 GRT 통합 차고지 등 현장 시찰을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청라 GRT 차고지에서 GRT 추진 현황 브리핑을 받고 차고지 주요 시설물을 시찰한 후, 바이모달트램을 타고 청라국제도시 지역에서 시승 체험을 하며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산업경제위, 소관 기관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5일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소관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스마트시티운영센터, 국제기구(GCF, UNESCAP),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인천종합에너지(주) 등을 직접 방문해 운영 사항을 살펴보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위원들은 “향후에도 지역 현안 사항과 관련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의정 활동을 적극 펼쳐 시민 소통과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개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보고와 2019년도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2018년 의원 연구단체인 ‘정책개발연구회’ 등 3개 단체 연구 활동 결과 보고 사항과 2019년 활동을 등록한 ‘예산의 올바른 정책연구모임’ 등 9개 단체의 활동 계획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2019년 인천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로 9개 단체를 등록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주요 시책 및 민생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의회저널>에는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440-6137~8 ㉠www.icouncil.go.kr

인천을 그리다

Drawing & Memories

300만 인천 시민이 살아가는 소중한 삶의 무대,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인천을 **여러분의 손끝으로 그려주세요.**

356일, 즐거움이 녹지 않는 ‘신포국제시장 청년몰 눈꽃마을’

청년몰은 만 19~39세 미만 청년들에게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 때문에 창업에 나서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고, 전통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7월에 문을 연 신포국제시장 청년몰 눈꽃마을은 그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18명의 청년 상인들이 젊은 트렌트에 맞는 감각적인 맛과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졌습니다.

문의 중구청 경제정책과 032-760-7362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구 우현로35번길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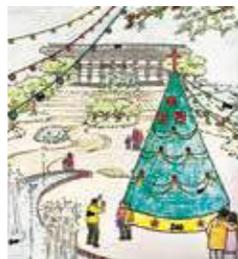
<굿모닝인천> 2018년 12월호 컬러링 인천 당첨자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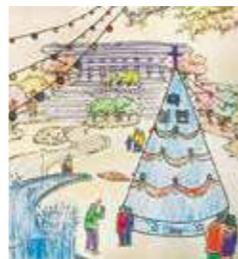
김은주 연수구 옥련동



손철현 부산시 동래구



문아라 계양구 작전동



서명수 중구 도원동



장미애 남동구 구월동

일러스트 박성경 작가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미디어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2)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 독자마당 파일 첨부
- 3) 기간 : 2019년 1월 21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Happy New Year!

09 겨울철 수도 미터(계량기) 동파 예방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수도 미터(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파 예방 요령]

- * 보호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해 찬 공기를 막습니다.
- * 보호통 내에 고인 물을 제거합니다.
- * 보온을 위해 젓지 않게 비닐로 감싼 헌옷 등으로 채웁니다.
- * 보호통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 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합니다.
- * 외부와 연결된 주 출입문은 반드시 닫습니다.
- *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를 사용하여 보온 조치 합니다.
- * 동파 예방 보온재 필요 시 수도사업소로 연락하면 무상으로 보급해 드립니다.

문의 : 미추홀콜센터 ☎ 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10 인천여성의광장 시설물(대강당) 대관 온라인 예약 서비스

인천여성의광장 시설물(대강당) 대관 예약이 기존 방문 접수에서 이 용객 편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온라인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기 : 2019년 3월분 대관 예약부터(1월부터 예약 가능)

예약 및 문의 : 인천광역시 온라인 통합 예약 시스템
 ☎ reserve.incheon.go.kr ☎ 032-440-8976

11 인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 통합 운영 안내

인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 개편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인천시 주요 박물관 홈페이지가 통합 운영됩니다.

해당 박물관 : 인천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통합 홈페이지 : ☎ icmuseum.incheon.go.kr
 문의 : 인천시립박물관 ☎ 032-440-6750

12 한부모 당사자 경희사이버대학교 무료 수강

한부모지원센터는 회원에 한해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내용 : 한국한부모연합과의 산학협동 협약을 통한 학비 감면
 - 입학금 30만 원 면제
 - 수업료 100% 감면(소속 한부모 당사자),
 수업료 50% 감면(소속 한부모 당사자의 자녀, 소속 활동 회원)
 문의 :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032-525-5188

[경희사이버대학교]
 모집일정 : ~1월 11일 오후 9시까지
 선발방법 : 자기소개서 80%, 인성검사 20%

13 기초 생활 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2019년 1월부터 완화되는 기초 생활 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을 안내 해드립니다. 해당되는 시민 여러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생계	138만 원	의료	185만 원
주거	203만 원	교육	231만 원

완화 대상
 - 부양 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 부양 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 129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www.bokjiro.go.kr



14 월미공원 동절기 체험 행사

월미공원에서 진행되는 동절기 체험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우리 고유 민속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내용 : 썰매타기, 팽이치기 등 체험 행사
 기간 : 1월 1일~2월 10일(오전 9시~정오)
 *영하 5~7도 이하 2~3일 이상 지속될 때 운영(기상에 따라 변동)
 장소 : 월미공원 전통정원 내 부유지
 대상 : 누구나(현장 선착순)
 문의 : 월미공원사업소 ☎ 032-765-4133

15 (가칭)청년문화창작소 명칭 공모

인천문화재단이 새롭게 개관하는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공간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 내용 : (가칭)청년문화창작소 명칭 및 그 의미
 응모 자격 :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단, 개인 자격으로 1인 1명칭 제출)

접수 기간 : 1월 16일까지
 접수 방법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www.ifac.or.kr) 공지사항 내 ‘(가칭)청년문화창작소 명칭 공모전’
 문의 : 인천문화재단 ☎ 032-766-5976

16 구제물포구락부 임시 휴관

더 나은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한 구제물포구락부가 운영 준비에 따라 1월 한 달간 임시 휴관합니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휴관 기간 : 1월 1일~1월 31일
 문의 : 인천중구문화원 ☎ 032-761-2778-9

BOOK INFO

나의 아름다운 벚꽃 동산

“나에게 벚꽃 동산은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 예전에 가르쳤던 학교, 내가 졸업한 학교이다.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함께 신앙 생활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나라 이 땅이기도 하다.”

- 나의 아름다운 벚꽃 동산 中



나의 아름다운 벚꽃 동산
 저자 백형찬
 320쪽 1만6,000원
 퍼넨곳 태학사

저자는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나 인천 자유공원 기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제물포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생명과학자를 목표로 공부했다. <나의 아름다운 벚꽃 동산>은 대학에서 예술인을 양성하는 저자의 삶과 신앙을 담은 수필집이다. 젊은 예술인들, 교육 현장에서의 일화와 교육 문제에 대한 교육가로서의 생각,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신앙 단상을 솔직 담백하게 엮었다. 책은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작 수필, 문학 전문지와 일간지 기고 글, 신앙 에세이 등 각 장마다 실린 다양한 주제의 짙막한 이야기는 직접 찍은 사진과 곁들여져 독자들에게 짧게나마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9 새해 ‘남북 평화의 파시^{波市}’를 기다리며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푸른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저만치서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다. 바다 빛깔과 구분된 거대한 황금물결이었다. 이리저리 출렁이는 파도의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고기 군단은 해안 쪽을 향하여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다가왔다.

섬에 가까워질수록 물고기 떼의 울음소리가 커졌다. 바람 소리 같기도 했고, 수십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한꺼번에 우는 소리처럼도 들렸다.

“철퍼덕, 철퍼덕!”

해안에 닿은 물고기 떼가 크고 작은 물장구를 일으켰다. 뿌연 물 보라에 햇살이 내려앉으며 수면 위로 열린 무지개가 피어났다. 무지개 사이로 배가 누르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녀석들이 튀어 올랐다. 섬을 에워싼 바다 전체가 금빛 물고기들로 퍼덕거렸다. 살구꽃이 필 무렵, 연평도엔 거대한 ‘참조기 떼’가 찾아들었다. 산란을 위해 찾아온 수백억 마리의 조기 떼를 잡으려고 수천 척의 배들이 함께 들어왔다. 황해도, 경기도, 평안도 등지에서 온 어선들은 조기를 잡지 않고 ‘퍼서’ 담았다. 그야말로 ‘조기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였다.

조기 떼가 들어온 연평도엔 일시적으로 시장이 형성됐다. 바다 위의 시장 ‘파시’(波市)가 서는 한두 달 정도의 기간, 한적하던 섬은 시끌벅적하고 흥청망청한 도시로 변신했다. 어획물을 사고 파는 어선과 상선은 물론 선구점과 음식점, 목욕탕에서부터 여관, 술집, 대서소까지 들어와 섬 전체가 들쭉였다. ‘물새’라고 불리는 여인들이 ‘한 물 뜨러온’ 사내들을 유혹하는 모습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돈 실러 가세, 돈 실러 가세 / 연평바다로 돈 실러 가세...’란 ‘연평도 배치기소리’의 첫 구절처럼 파시가 형성되면 섬에 돈이 넘쳐흘렀다. ‘개도 돈다발을 물고 다닐’ 정도였다. 흑산도, 위도와 함께 서해안 3대 파시였던 ‘연평파시’가 소멸한 시기는 1960년대 말이다. 대규모 안강망 선단이 어린 물고기까지 잡아들인 남획의 결과, 조기 떼는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조기 떼가 떠난 지 반세기가 다 된 2019년 새해, 서해5도에 파시가 다시 선다. ‘남북 평화의 파시’다. 인천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해상파시를 부활하고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엇보다 남북 공동의 이익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차단, 어장 확대로 서해 5도 주민들의 경제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연평도는 본래 30km 거리의 ‘해주’ 문화권에 속한 섬이었다. 시가 인천~해주 항로를 개설하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황해에서 조기 떼가 사라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허나, 조기이면 어땡고 꽃게이면 어땡가. 중요한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남북의 어민들이 공유의 공간에서 어우러져 삶을 일구며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인 것을. 혹 아는가. 남북공동어로구역 실현과 동시에 조기 떼가 금빛 물결을 일으키며 귀환하는 기적이 찾아들지...

서해평화협력시대의 역사적 개막을 앞 둔 2019년 새해 새 아침, “부걱 부걱” 어디선가 황금조기 떼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한쪽 벽에 크게 걸린 가족사진이 그리 부럽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 흘러 형편은 조금 풀렸을지 몰라도, 온 가족 둘러앉아 얼굴 보는 일은 더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굿모닝인천>이 동네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집 안 행복이 흐르는 자리에, 소중한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스물 갓 넘기고 만나 연애할 때만 해도, 아이 셋 낳고 같이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꼭 닮은 부부에게 7년의 연애, 또 7년의 결혼생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이 됐습니다. 밤낮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아빠, 시아버지 모시고 삼남매 돌보며 착실하게 살림하는 엄마.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서로가 있어 힘이 되고 행복한 이재정-신지숙 씨 가정에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이재정(38), 신지숙(34) 부부와 둘째 수호(7), 첫째 율아(8), 막내 다호(5) 가족(왼쪽부터)

이달의 사진은 [박현 사진관]에서 찍어 주셨습니다.

조태호 사진사(63)는 30년 넘도록 사진을 업으로 삼고 있다. 2003년 처남 박기현 씨가 문을 연 사진관을 넘겨받아 11년째 운영 중이다. 박현 사진관의 ‘박현’은 처남의 이름에서 두 글자를 따서 지었다. 예전만큼 손님이 없어 녹록지 않지만, 뷰파인더 너머 환히 웃는 이들 보는 맛에 계속 셔터를 누른다. 위치 계양구 안남로 548번지 130호 문의 032-549-3754

※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개와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 보내주세요.

신청 : <굿모닝인천>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독자마당(성명/연락처/주소 필수)

